

마. 개화기의 경장은 단일처리시 품종간 차이가 없었으나, 자연일장과 장일하에서는 품종간 차이가 뚜렷하여 자연일장대비 장일하에서 경장의 증가정도에 의하여 품종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바. 수정절수의 일장에 대한 반응은 개화일수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일장이 길어질수록 수정절수가 증가하였다.

사. 종실중은 품종간 차이가 뚜렷하였고, 자연일장하에서는 종실중이 가장 높았으며, 단일하에서는 가장 적었다. 경중은 종실중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 콩 수량 및 유용형질의 유전적 개량에 관한연구

(작물시험장) 김석동*, 홍은희, 함영수

(충남대농과) 최봉호

콩 육성품종의 유전적 개량 효과를 구명코자 재대종인 금강대립과 이를 모본으로 하여 선발 육성된 강립, 그리고 최근 육성된 장엽콩, 황금콩을 병시하여 재배시기, 재식밀도, 시비량을 각각 2수준씩 두어 수량성 및 주요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1. 종실수량 및 일당 생산성에 있어 개화일수, 생육일수, 결실일수가 금강대립에 비해 유의하게 신품종들이 단축되었음에도 강립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장엽콩, 황금콩과는 고도로 유의한 수량성 개량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2. 도복정도, SMV 와 SMV - N 에 대한 저항성 정도에 있어 신품종들이 금강대립에 비해 현저히 개량되었음이 인정되었고
3. 개체당 협수와 백립중은 최근에 육성된 장엽콩, 황금콩이 금강대립, 강립에 비해 적었으나, 도복정도와 이병정도 (SMV) 등이 수량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을 보임으로 이들 형질의 유전적 개량이 신품종의 수량성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입모 본수에는 품종간 차이가 없었으나 생육기간동안 생존율의 차이에 의한 수확본수가 유리하게 신품종의 수량성에 작용하였다고 보며,
4. 경장, 주경질수, 분지수, 분지질수에 있어서는 신품종종간에 구별될만한 일양적인 경향은 없었다.